

도시 공간 형성의 실천으로서 비공식성에 대한 고찰¹⁾

채 현 정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료)

1. 비공식 경제활동의 정의: 공식-비공식의 이중주의를 넘어

인류학자 하트(Hart 1973)가 가나의 비공식 경제를 연구한 이래로 국제노동기구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트는 비공식 부문을 수입 원천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입장이다²⁾. 그는 비공식 영역의 수입원이 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소비를 충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공식 부문의 경제적 기여와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제3세계 경제 발전에서 비공식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하트의 주장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비공식 영역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그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비공식 활동을 7가지의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진입장벽의 용이성, 토착적 자원에 대한 의존, 가족 경영 기업, 소규모 조직, 노동 집약적이고 제한된 기술, 공식 교육 체제 밖에서 획득하는 기술, 규제되지 않는 경쟁적인 시장”(Bromley 1978: 1033)은 비공식 부문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후 연구가 거듭될수록 국제노동기구가 비공식 부문을 정의하는 기준도 변화하였고 비공식 경제가 출현하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었다.

비공식 경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공식과 비공식을 이분화하는 것이다. 하트와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공식 부문은 공식 부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공식과 비공식을 이분화하는 입장은 국가의 통제의 범위에 있는 것, 합법성을 갖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한다. 비공식 부문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1) 본 글은 저자가 2014년 응시한 인류학과 박사과정 논문자격시험 중, 도시인류학 분야에서 출제된 ‘비공식 경제활동이 도시 공간의 형성과 연관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라’라는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제출한 글이다.

2) 하트는 임금을 받는 경제활동과 자영업을 각각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임금 경제활동은 공식/민간 영역의 임금 경제활동과 연금 등의 수입을 포함한다. 반면에 비공식 수입 기회는 또 다시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농업, 시장 판매를 위한 작물 농작, 건설인부, 자영 기능공과 같은 소규모의 1, 2차 산업 활동과 소규모 소매업자와 교역자를 포함한다. 또한 주거, 운송, 상품 투자, 전세 활동과 같이 다소 큰 자본 투입을 통한 사업과 사람들 간의 선물 교환이나 차용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불법적인 비공식적 활동에는 불법 사채, 마약이나 절도 상품의 암거래시장, 절도, 도박 등이 포함된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법외적(extra-legal) 영역에 해당한다. 때로는 불법성을 띤 범죄 경제와 지하 경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비공식과 공식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전통-근대, 탈규범-규범, 농촌-도시, 농민-자본가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영역의 속성으로 대입하는 경향마저 보인다(Sindzingre 2006: 60). 제3세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주목받은 비공식의 개념이 아직 근대화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전통적이고 농촌의 관습을 가진 경제 영역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는 이중주의(dualism)는 비공식 영역을 다루는 데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비공식 경제의 긍정적인 기능을 지지한 학자들과 비공식 경제를 공식적 경제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들이다. 하트의 주장과 같이, 비공식 경제는 국가 규제 외부에서 공식 경제로 유입되는 경제적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는 ‘합리적인’ 발전만을 지향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비공식 경제활동을 무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공식 경제는 국가가 통제하는 공식 경제가 실패하거나 국가의 무능력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경제 규제 강화로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비공식 경제는 국가의 합법화 정책이 몰고 온 여파를 잠재우는 안전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Tripp 1986: 55). 비공식 경제활동은 국가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하는 일자리와 공식 서비스를 대체한다. 트립은 탄자니아의 국영 버스 체제가 통근 인력의 수송을 책임지지 못 하자, 비공식적인 교통 수단이 출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속에 걸릴 경우 결혼식에 참여하는 단체 가족 버스로 돌변하는 교육지책은 비공식적인 서비스가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하여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비공식 경제가 공식 영역의 부족을 채워주는 보완적 영역이라는 주장은 비공식 경제를 비합리적인 영역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걸림돌로 치부하는 입장을 반박한다.

그러나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는 이중주의의 입장은 비공식 경제를 아직은 공식화되지 않은, 공식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브롬리에 따르면, 이는 비공식 영역을 “현재만 있고, 미래는 없는”(Bromley 1978: 1034) 것으로 보는 입장이기도 한다. 비공식 영역은 정부의 지원이 없고,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의 규제 밖에서 작동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지원하고 비공식적인 기업들을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주자가 에르난토 데소토(de Soto 2003[2000])인데, 그는 비공식성은 국가의 규제를 초월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국가의 법제 하에서 합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비공식 영역에 축적된 ‘자산’은 새로운 자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본’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전까지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이지 못하고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데소토는 그들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기업가 정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산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법체제가 부재하다고 주장하였다. 서구의 재산 체제는 자산을 문서화함으로써, 소유, 담보, 저당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한다. 그는 비공식 영역의 자산을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사업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법 체제에 접근하는 비용과 장벽들을 제거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데소토가 제안한 자산의 자본 전환 방안 추진은 외환 위기 이후 효력을 잃었으며, 공식-비공식을 합법-법외적 영역으로 등치하는 데소토의 주장은 비공식성, 비공식 영역의 범주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포착하지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Bromley 2004: 277).

공식과 비공식을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한 이중주의 입장은 공식과 비공식 영역이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비공식 영역은 단순히 전통적인 생산 관계가 지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된 경제가 성장한 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Castells and Portes 1989: 13). 비공식 영역의 개념은 비공식을 고립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비공식과 공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연속성을 지니며 나머지 경제활동과 갖는 관계를 포착하지 못 했다. 실상 비공식 영역을 정의할 때에 비공식 영역이라고 규정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도 비공식 영역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Guha-Khasinobis et al. 2006). 비공식과 공식의 영역은 경제활동의 어느 과정에서의 공식성을 가늠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최종 상품의 생산 과정의 공식성을 따지느냐, 유통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느냐, 사업 승인의 공식성을 따지느냐에 따라 경제활동이 속하는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할 법한 비극적인 사건사고들은 비공식과 공식의 묘연한 경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브롬리(Bromley 2004: 278-279)는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제3세계의 비공식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깰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는 리마의 쇼핑몰에 있는 한 클럽 화재가 얼핏 보면 화재를 예방할 수 없는 불법적인 건축에 의해 발생한 비극, 즉 비공식성이 빚어낸 사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복잡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쇼핑몰은 해당 시청의 허가를 받고 개발자가 설계한 공식 영업소였다. 또한 그 클럽을 운영한 투자 회사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였으며, 공식적인 계약으로 쇼핑몰로부터 클럽을 임대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시청이 그 클럽의 개업을 직접적으로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청이 조사를 나왔을 당시 클럽은 화재 예방 규칙에 부합하지 않음이 밝혀졌지만, 시 당국은 업소에 영업 정지를 명하지 않았다. 화재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투자 회사의 회계에서 범법성이 발견되었고 회사가 쇼핑몰과 맺은 임대 계약에서도 부정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는 비극적인 사건에 연루된 재산이나 기업을 공식과 비공식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보여준다. 오히려 비공식 영역과 공식 영역의 활동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의 경제활동에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단순하게 비공식 영역은 국가의 통제와 규제 밖에 있는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과 비공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관점은 국가의 법적 관료적 위치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을 옹호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비공식성의 개념은 국가의 묵인 하에 노동자나 조합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Alsayyad 2004: 12). 공식과 비공식이 분리된 영역이 아니듯, 비공식성은 국가의 규제 밖에 놓여 발전하는 사회과정이다. 그것은 “국가의 묵인과 노동 계층의 권리 박탈로 특징 지워지는 통제의 새로운 형태”(Portes and Castells 1989: 27)이다. 따라서 비공식 영역의 경제활동은 그것을 법적으로 취약하게 하는 국가 정책에 저항하기도 한다. 트립(Tripp 1986)은 비공식 영역의 활동이 단순히 생계윤리와 위험회피의 전략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제약이나 독점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집합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켜 비공식 영역의 범위 역시도 달라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식과 비공식이 얼마나 연속적이고 구분이 모호한가의 논의들은 비공식 경제활동을 특정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려는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는 비공식 영역이 본질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통제의 형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는 이들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여부 또는 개입 정도에 따라 구별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공간적인 경계 구분을 연상하게 하는 공식 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보다도 경제활동의 특성을 지시하는 공식-비공식성(informality)이라는 용어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개념화된다(장호준 2011: 118). 비공식과 공식을 분리된 영역으로 칭하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공식과 비공식의 개념에 더하여 경제활동의 범주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는 비공식이 공식 영역 혹은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의되는 특성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공식성은 국가의 규율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그 외부에 위치하지만 국가가 비공식과 공식을 다루는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비공식성을 공식성과의 연속 선 상에서 이해할 때, 국가가 비공식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 비공식성의 사례들

비공식성은 특정 사회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1세계와 3세계의 경계를 가르지 않고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비공식 영역의 연구들은 비공식성이 주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했고 도시의 사례들에 집중하여 연구한 경향이 있다. 도시화와 비공식성의 증가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도심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이나 비공식 주거공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도시의 비공식성에 대한 연구들 중 도시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비공식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화 과정에서 퇴출 위기에 놓이는 무허가정착지와 비공식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리 행상인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성의 특징을 검토해보겠다.

1) 무허가정착지(Squatters)

비공식 거주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주택 수요가 부족해짐에 따라 나타난다. 무허가정착지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주거 공급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도시민들이 주거지와 공동체를 꾸린 사례이다. 무허가정착지의 출현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결해주지 못 하는 주거 기반을 국가 규제의 외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거주자들은 도시의 공유지나 공터에 자립적으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는데, 이 지역의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공유지는 국가와 시 정부에 의해 개발자나 투기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화된다. 데소토의 제안처럼 국가의 자산에서 부동산 시장의 자본으로 전환된 토지는

실제로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다 그것의 소유와 권리를 문서화하고 소유한 자들의 자본이 된다. 일반적으로 도심 재개발이나 도시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 개발이 계획되면, 이 곳에 거주하는 도시 하층민이나 이주자들은 국가와 공적 기관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는다. 거주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무허가정착민들은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조금 인정받고 철거를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때 비공식적인 주거 공급과 사용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그 사용권을 보호받지 못 한다. 이처럼 무허가정착지는 중국에는 비공식성의 문제와 거주자들의 토지와 재산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무허가정착지는 주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공공 계획이 완전히 부재하여 무허가정착지의 형성이 필수적인 때도 있다. 솔리만(Soliman 2004)은 이집트의 비공식적인 무허가정착지가 어떻게 공식적인 도시화를 촉진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의 공식적인 도시화는 도로, 공공 빌딩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시설 건설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시화는 비공식 영역에서 더 많이 진행되고 도시에는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주거지 개발이 증가한다. 도시의 비공식 거주 인구가 도시 전체 거주자의 반 이상을 넘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이집트 도시에서 비공식적인 주거 공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주택 건설에 관여하지 않던 이집트 정부가 뒤늦게 공식적인 주택 보급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 개혁의 배경 하에서 주택 정책을 진행하였다. 도시 주변의 농지와 사막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대규모 농토도 농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 때문에 개발 회사에 넘어가면서 도시화와 공식 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자녀에게 토지를 균분 상속하는 법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자 생산성을 잃고 팔리는 땅이 많아졌다. 이집트의 사례는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영화와 자유화 정책이 주택 건설과 무허가정착지의 퇴출을 촉진하는 특징을 보여줄 뿐 아니라, 공공 계획의 특성이 무허가정착지를 양산하고 상속제의 문화적 특성이 토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맥락을 동시에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무허가정착지는 공용, 국영 토지나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법적인 소유권이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에 시장 가능성이 생기면서 갑자기 국영 토지를 민간에게 팔아버리거나 비공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소유권과 사용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허가정착지 중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사회적으로 존재했음에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퇴출되어야 하는 사례도 있다. 때로는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비공식성이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번넬과 나(Bunnell and Nah 2004)가 분석한 말레이시아의 원주민 오랑 아슬리(Orang Asli) 사례는 토지를 사용, 점유, 경작함으로써 관습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 도시 개발 앞에서 비공식적인 토지 점유를 이유로 퇴출의 위기에 놓이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도시재개발의 과정은 오랜 시간 마을 공동체가 유지해 온 땅과 연결된 인간의 삶, 토지와 마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습적인 권리에 대해 국가의 합법성을 얻느냐의 문제가 공식과 비공식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가 될 뿐이다. 여기에서도 비공식성은 그 본질적인 속성보다 국가의 권위에 의해 인정되는가에 따라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 국가 이전에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못 한 것이기에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 비공식성은 국가가 스스로를 공식적인 것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그 이외의 질서와 관습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버려 둬으로써 발생한다.

2) 거리행상인(hawkers), 시장(market-place)

도시의 소비와 교환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은 도시의 높은 물가와 부족한 공공 서비스의 대안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거리행상인은 도시 곳곳에서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가까운 곳에서 손쉬운 서비스들(구두닦이, 이동식 카페, 이동식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속도의 도시적 삶이 작동하기 위한 근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 경제는 비공식이라고 규정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대형 유통 채널과 마켓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도시의 전통적인 시장은 대도시에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세계 도시에 만연한 교환의 장소이다. 그러나 소비와 교환 체계가 근대적으로 전환되면서 거리와 공공 공간에 간이로 열리는 크고 작은 시장은 도시의 비공식적인 소비와 교환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시장을 단순히 비공식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거리와 시장의 소규모 상점은 주로 가족이 운영하거나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되기 때문에 비공식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최종적인 거래 방식이 이 시스템 전체를 비공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최종 산물이 판매되기까지 그것이 유통되는 채널 과정에서의 공식과 비공식성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공식적인 도매상점이나 유통 채널로부터 보급된 것이라면 이러한 판매 과정을 반드시 비공식 영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셀리그만(Seligman 1989)은 페루의 여성 상인 출라(chola)들이 사실은 더 큰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업 생산물을 산업 영역으로 접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페루 경제에서 행상인들은 도시로 일차 산업 생산물을 순환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Seligman 1989: 706). 이처럼 판매의 경로가 복잡적이고 행상인들이 공식과 비공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때, 어느 한 단계에서의 경제활동과 그 주체에게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비공식 경제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더 큰 경제 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비공식 소매 상점, 거리 상인은 그들의 소비와 교환의 방식에 의거하여 비공식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공식성과 국가의 규제와 직접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그들의 공공 공간에 대한 사용 때문이다. 도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도시의 공원, 거리와 같은 공공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공공 공간은 공공의 참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공간이지만, 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다. 공공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 공간과 대비되지만, 사용과 점유에 있어 국가가 규제하고 허가한다. 공공 공간의 성격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나 폴리스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 곳에서 공간은 집합적인 사용을 위해 열려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폴리스에서의 권리는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소수의 계층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 노예, 일반인들은 그러한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고대의 아고라와 폴리스가 특권

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편협하게 정의되었던 것이 현재의 공공 공간 개념에도 의도치 않게 전유되고 있다”(Smith and Low 2006: 4)는 분석이다.

도시의 행상인과 시장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는 도심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도시의 행상과 시장의 경제활동을 더 이상 적법한 활동으로 용인하지 않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romley and Mckie 2009, Hsu 2010, Stoller 1996). 도시의 행상인, 노점, 전통적이고 자생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시장은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이러한 경우 도시 관할 정부는 거리에서의 상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들이 기존에 위치하고 있던 도심으로부터 정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이전하여 도시 공간을 정비하고자 한다. 거리 상점들을 근대적인 쇼핑 센터나 지정된 구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상업 활동에 대한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구분을 활성화시킨다. 정부가 지정한 상점은 공식적인 등록증을 갖춘 상인들에게만 할당되었다. 그러나 비공식 상인들을 퇴출시키는 대부분의 정책은 실패하고 마는데, 비공식 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가 도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위치할 때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되었던 상인들은 다시 기존의 공간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 이동하여 행상이나 노점을 운영하게 된다.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은 거리 노점과 시장은 본래 도시의 정비 계획과는 상충하는 장소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도시의 정체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문제시되는 비공식 시장이 도리어 도시의 관광 목적지로 꽤 알려진 경우가 많아 이들을 도심으로부터 몰아내는 정책은 도시의 장소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도시의 전통적인 상업 공간과 행상인들은 도시 계획 정책과 공간에 대한 사용 의도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내몰리게 된다.

3. 비공식성과 도시 공간

1) 공간적 실천으로서의 비공식성

무허가정착지와 행상인의 사례처럼 도시 공간에 대한 점유와 사용을 둘러싼 비공식성은 국가에 의해서 정리되거나 정돈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국가는 관리하고 통치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도시를 기획한다. 스캇(Scott 2010[1999])은 근대 국가는 매우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소유권 제도를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중앙으로부터의 가독성과 통제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도시는 계획에 의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하나의 구역은 하나의 기능만을 갖도록 설정된다. 비공식적인 공간 사용은 도시 공간의 적법한 용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거리 행상이나 비공식적인 시장은 도시 계획의 산물도 아니고 정부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적인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도시를 계획하거나 재건할 때에도 비공식적 활동을 위한 계획은 준비되지 않았다. 비공식 활동은 도시에서 사라지거나 제거되어야 할 처치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비공식성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시각에서 도시의 비공식성을 도시화와 도시 공간 변화의 주요한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들은 도시의 비공식성이 세계 도시 전반에 만연한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도시의 비공식성이 고용, 주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도시화를 추진하는 동력이라는 주장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도시화 과정은 도시 산업의 성장과 자본, 인구 순환에 따른 집중과 팽창이다. 그러나 최근 메트로폴리탄의 경제성장은 인구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수출동력이나 외국 자본의 유입과는 단절된 상태로 인구 집중에 의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채무와 경기침체로 인해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농업 기계화, 식량수입, 내전, 가뭄, 거대 농기업과의 경쟁과 같은 원인으로 시골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전지구적인 동력들이 도시화를 지속하는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의 성장의 대부분은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스스로 집을 짓고 비공식 생계형 노동의 고용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 데이비스는 “미래의 도시는 이전 세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유리외 강철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손으로 짠 벽돌, 지푸라기, 재활용 플라스틱, 시멘트 덩어리, 나뭇조각 등으로 지어진 도시”(Davis 2013[2006]: 33)라고 말한다. 데이비스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제3세계 국가의 무능이 도시의 비공식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비공식 영역이 국가가 충족시키지 못 하는 노동, 주거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성장 없는 도시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공식적인 공간이란 “다른 형태의 공간을 부인하는 것, 즉 내부적인 차이와 역사적인 조건을 무시한 채 차이를 제거하는 단일한 공간이자 합법성만을 추구하는 공간”(Hernandez and Kellett 2010: 2)이다. 반면에 무허가정착지나 시장의 공간과 같은 비공식적인 공간은 무질서, 그로 인한 위협과 범죄가 도사리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기준으로 도시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규명할 수 없다. 특히, 비공식적인 공간을 불법성으로 전체화할 수 없다. 이 곳은 오히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과 사회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혼종적인 공간이다. 비공식 공간의 다양성은 “도시가 보유하는 중심적인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소개하는 공간적인 수정을 수행할 수 있다”(Hernandez and Kellett 2010: 5). 비공식 영역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규칙을 파괴하는 것을 잠재적이고 창의적인 ‘오용(misuse)’으로 보는 시각은 도시의 비공식성이 갖는 수행적인 능력에 주목하도록 한다. 비공식 영역의 행위자들을 적극적인 행위를 제안하는 점유자로 보는 것은 도시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집단과 시민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는 함의를 지닌다(Spencer 2010: 57). 스펜서는 근대적 도시로 설계된 브라질리아에서 거리와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어긋났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에 제약을 가하는 도시의 공간 구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능한 공간들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한다. 또한, 공공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주요 장소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는 자연스럽게 상업 공간이 생겨났다. 브라질리아로 통근하는 위성도시의 근로자들이 늘어나자 비공식적인 상점들이 중앙 시장과 터미널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 곳은 두 장소를 연결하는 비공식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도시 내

에서 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또한, 음료를 파는 행상이나 주차 감시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들의 활동이 생겨나면서 브라질리아는 본래의 기획과 다르게 공식과 비공식이 혼재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스펜서는 이러한 소규모 상인들의 출현이 국가가 제거했던 시장(market-place)을 다시 형성하는 힘이 된다고 본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동이 공간에 특정한 성격을 부여하면 그러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시설들이 공식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스펜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브라질리아는 정적인 건축 도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시임을 강조한다(Spencer 2010: 64-65).³⁾

이처럼 공식과 비공식은 도시에 공존하고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도시의 비공식성은 도시의 기획을 파고들어 새로운 공식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계획에 맞게 건축하는 것은 도시 공간에서의 비공식적 활동과 지역민들의 공간 실천을 틀 지울 수 없다. 도시 개발 계획이 공간의 실제 사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국가는 그들의 입장에서 거리를 사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계획한다. 대만에서 쇼핑 거리를 국제적이고 근대적인 거리로 만들기 위해 정비한 사례에서 노점과 상점 상인들의 요구를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Hsu 2010). 정부가 원하는 거리 디자인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왜곡되었는데, 애초의 디자인과 재료 사용은 현실적인 이유와 다른 법규에 의해 변경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방문객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에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하고 노점을 금지하였지만 그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국제적인 쇼핑 거리로 홍보할수록 노점상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정부가 제거하고자 했던 거리의 혼잡함이 더 심화되었다(Hsu 2010: 298). 국가의 계획과 실제 거리에서 행해지는 관습의 괴리는 지역민들이 정부의 규제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조작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계획은 계획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비공식적 활동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지침은 변화된 비공식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의 비공식성은 공식성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방식으로서 결과적으로 도시 공간을 만들어낸다. 국가 규제에 대한 적응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실천으로 작동한다. 드 세르토(de Certeau 1984)는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실천은 주어진 문법을 변형하여 대화하는 사람들의 발화행위와 같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국가가 기획하는 공간 디자인이라는 문법 속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활용하고 변형하여 재구성한다. 공간적 실천은 존재하는 규칙을 변형하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간의 규범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갖는다.

2) 국가(공식)와 비공식성의 관계: 비공식성의 정치적 동원

도시계획학자 로이는 “도시의 비공식성이 21세기 메트로폴리탄 공간 생산에서 주요한 양식”(Roy 2009: 826)임을 주장한다. 그녀는 비공식성을 경제적인 영역 이상의 ‘공간 생산의 양식(a ‘mode’ of the production of space)’으로 규정한다. 비공식성은 도시에 창조적인 파괴의 논리를 촉진시키면서 지리적으로 불평등하게 공간적인 가치를 생산한다. 무엇이 ‘비공식’이고 무

3) 브라질리아는 독립적인 도시이기보다 주변 위성 도시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주변 도시들로부터 통근하는 노동자들의 흐름과 그들이 비공식 시장을 구성해 낸 것은 도시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 보아야 함을 보여준다.

것이 ‘공식’인가를 통해 공간의 가치를 다르게 하여 도시를 고급주택화하거나 원시적 축적의 전선(frontier)으로 만들어버린다(Roy 2007: 149).

일반적으로 도시의 비공식성을 개선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마치 무허가정착민과 같은 도시 빈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도시 경관의 미적인 수준을 높이고 질서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그로 인해 거주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들의 임금이나 일자리 조건, 정치적 능력 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 영역을 둘러싼 개발은 실상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낳는다. 비공식성에 대한 국가의 제재와 법의 실행이 다양한 사회 집단과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결집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비공식성(무허가정착지, 거리 행상인)이 도시 빈민의 것인 양 동일시되어 왔지만 도시 비공식 영역이 반드시 도시 빈민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Bromley 1978: 1035). 비공식 영역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빈민은 아닐뿐더러, 비공식성은 도시 빈민 뿐 아니라, 도시 중산층, 개발 회사, 국가가 종합적으로 참여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 중심에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많이 생산함과 동시에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부족 현상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주거 수요 덕분에 도시 외곽 지역의 주택지로서의 가치가 증가하고, 중개인들은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 사이를 매개하며 토지와 주택 매입을 성사시키거나 새로이 농지를 도시 개발지로 판매하도록 부추긴다. 여기에 개발자인 공공 혹은 민간 업체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거 단지를 짓고, 규제자인 정부도 행정 건물을 건설하여 농지의 용도를 주거 적합지로 용도를 바꾸는 데 기여한다. 토지가 매입되고 주거지로 개발되는 과정, 농지가 도시 주거지로 바뀌는 과정은 기존의 세입자들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고 비공식적인 주거 인구를 생산한다. 비공식성의 출현은 다양한 주체들이 합작하여 제한된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적 공모이며, 로이의 지적처럼 원시적 축적의 일환임에 다름없다. 데이비스는 “제3세계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사업에서 주로 이익을 얻은 것은 도시의 중산층과 상류층이었다. 이들은 세금은 적게 내고 최고의 시정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계층”(Davis 2006: 95)이라고 지적한다. “비공식성은 도시 개발의 주요 방법이고, 도시 개발은 자산을 공식화하려는 토지 소유자들이 복잡하게 얽힌 조직적인 기제”(Soliman 2004: 183)라는 점에서 중산층을 위한 주거와 토지 소유권을 위한 주요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활동이 비공식적인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그것이 처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고 과거에는 공식적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때때로 도시의 비공식성은 국가가 치러야 할 많은 개발 비용을 감축시킨다. 토지를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비하기까지 들어야 하는 국가의 비용이 비공식 영역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노력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비싼 땅에 들어선 비공식 주거를 허용해 주고 간접적으로 정착을 고무하기도 한다.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는 유동적일 뿐 아니라, 공식의 외부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범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비공식적인 것은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된다. 비공식성은 공식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법외적(extra-legal)인 것, 반쯤은 공식적인 것(semi-formal) 등을 포함할 수 있음에도 이것은 불법적인 것(illicit), 범죄적인 것(criminal)과 같은 극단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비공식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비공식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집트 정부가 주택 개발을 추진한 원인은 테러리스트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비공식 주거지가 문제의 온상지라고 지목하였기 때문이다(Soliman 2004). 비공식 주거지는 불법적인 것이기에 범죄와 무질서의 온상이라는 고정관념과 결합하여 정책 도모를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된다. 말레이시아의 무허가정착지(kampung)는 불법거주자들이 사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공간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혔고, 정치인들은 도시화가 무허가정착민들의 무능력을 치료해야 하는 해결책이라고 제안하였다. 캄퐁은 물질적 향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실패를 암시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공간적으로 도시 밖의 공간으로 인식된다(Bunnell and Nah 2004). 이처럼 무허가정착지는 불법의 공간이자 실패와 위협의 공간으로 의미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공식성의 권위를 통해 비공식의 공간을 양산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동원한다.

솔리만(Soliman 2004)은 이집트의 비공식 주거의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주거가 위치한 토지의 유형과 주거를 건축한 주체에 따라 세분화하여 비공식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 중 공공주택의 사례는 비공식성이 국가의 주택과 건설 정책에 따라 공식과 비공식을 오가는 범주임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규범을 위배하는 것으로 비공식성을 규정하며 상황에 따라 달리 비공식을 생산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은 국가나 민간 기업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주택이지만, 만일 그곳에 새롭게 도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 국가는 그 공식성을 거두어들인다.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비공식적인 거주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식과 비공식은 국가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영역이 변화한다. 이는 비공식성이 국가의 범주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공식성은 국가의 규제 대상이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생산되는 국가 내부의 산물이다.

비공식성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비공식성이 출현하는 것은 국가가 공식성을 공표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도시를 공간적으로 정리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의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권위에 기대어 비공식성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의 대상을 혼용하고 통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도시의 상인들을 새로운 상업 공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도시 거리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상인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집단만을 새로운 상업 공간에 배치하도록 작동하였다. 상인들을 공공 공간으로부터 퇴출시킨 것은 비단 도시의 계획된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정비하는 것 뿐 아니라, 상인들에게 공식적인 등록을 요구하고 교역 방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비공식 상인들에 대한 도심 정비 산업은 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뿐 아니라, 상인 집단 내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였다(Bromley and Mckie 2009: 1501). 총

은 서비스와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만을 지원함으로써 가난한 상인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의 비공식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 공간의 사용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상품의 진열과 거래의 방식을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미시적인 차원의 관리와 혼용을 시행하는 것과 같다. 도시의 비공식성은 도시의 변형 과정을 통치하는 규범의 체계이자 논리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4. 도시의 비공식성이 왜 다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도시권의 문제

도시의 비공식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와 경제자유화의 배경 속에서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 같다. 초기의 비공식 영역에 대한 논의들은 제3세계의 경제를 이해하고 발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제3세계 도시의 비공식성은 경제활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3세계 도시화가 경제 성장을 동반하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도시의 비공식성은 불안정한 도시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할 뿐 아니라, 국가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도시화를 위해 조작되고 규정된다. 도시 비공식 영역이 도시 공간을 말 그대로 생산하고 도시의 기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공식성의 힘이 비공식성을 에둘러 도시발전의 양식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비공식성은 비단 제3세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공식성에 대한 연구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심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들에 치중해 왔지만, 도시의 비공식성은 과거에 비해 전지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지속되고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다(Brillembourg and Klumpner 2010: 125). 도시의 비공식성은 선진국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선진 도시의 비공식성에 대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의 혼종성을 도시의 공식과 비공식 지하 경제의 연결 속에서 밝혀보고자 한 벤카테시의 연구는 유동하는 인구만큼이나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공식과 비공식을 넘나드는 유동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뉴욕의 이주자들이 도시 비공식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뉴욕의 상류층 역시 도시의 마약, 도박, 미술품 암거래 등 또 다른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며 경계를 넘는 ‘부유하는(floating)’ 삶을 살고 있다(Venkatesh 2013).

도시의 비공식성을 연구하는 것은 도시의 경제, 공간, 사회적 차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가가 어떻게 비공식을 규정하고 이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와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감벤(Agamben 2009[2003])에 따르면, 비공식성은 ‘예외상태’에 다름없다. 즉, 법적인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비공식성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벗어난 상태인데, 그것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부터 인정받지 못 하고 배제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외상태가 가진 직접적인 생명정치적 의미는 법이 스스로를 효력 정지시킴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을 포섭하는 근원적 구조이다. 계엄 상태나 긴급 상태를 예로 설명할 수 있는 예외상태는 법적인 효력을 정지시키고 법 외적인 권력이 출현할 수 있는 법의 공백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감벤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예외상태는 상례적인 상태가 되며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통치술로 등장하였다. 예

외상태에서는 합법성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이나 예외를 통해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살펴본 비공식성 역시도 국가가 규정한 법 외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이 역시 국가의 내부에 존재하기에 그것은 하나의 통치술로서 작동한다. 무엇을 공식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은 배제를 통해서 비공식성을 부정적이고 범죄적인 것으로 낙인 찍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공식의 영역에서 뒤틀린 방식으로 확보한 공식성을 누군가에게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는다. 따라서 비공식성은 그것을 규정하는 국가의 권력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그 규정들이 어떻게 공식과 비공식 영역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개입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비공식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비공식 영역을 도시의 빈민들의 문화이자 전략으로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 비공식 경제의 사회적 안전망이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충족해주지 못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키는 순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왜 비공식 영역이 생산되는지에 대한 사회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비공식의 출발이 반드시 비공식이 아니기도 하고, 비공식은 또 다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설명하는 ‘문화적 요인’이 아니라 빈곤을 가져오는 ‘가난의 구조적 조건’(조은 2012: 304)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비공식성 역시 그것을 (재)생산하거나 공식과 비공식을 재구조화하는 구조와 권력 관계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로이와 데이비스는 비공식성을 낭만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아젠다를 강화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로이는 비공식성을 칭송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민영화된 국가가 그들이 보장해야 할 것들을 빈민들에게 짐 지우는 “도시 이데올로기”(Roy 2004: 304)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특히 데소토가 제3세계의 도시를 세계 경제 체제의 지리정치를 간과한 채, 3세계 영세업자들의 빈곤을 개인적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비판한다. 데이비스(Davis 2013[2006])는 자유화가 초국가적인 기구와 NGO들이 도시 빈민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빈민들의 자조(self-help)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빈민 자조를 보조한다’는 선전과 빈민의 자조를 찬양하는 것은 빈곤과 무주택을 구제한다는 국가의 획기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연막일 뿐이라는 것이다(상게서, 100). 그리고 이렇게 슬럼 주민의 역량과 용기와 자조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철회하게 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성에 존재하는 실천은 공식적 규범에 저항할 뿐 아니라, 도시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비공식성은 도시 공간의 공식적 질서와 반대되는 다양성을 내포한다. 비공식성은 법과 규제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동의하지 않음(disagreement)”(Lima and Pallamin 2010: 43)이 될 수 있다. 무허가주택을 점거하거나 공공 주택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과 같이 비공식성을 저항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도시에 대한 배제된 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도시의 사용 가치와 연관하여 작품(사용가치, 제품은 교환가치를 가짐)으로서의 권리, 도시 공간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차이와 정보의 권리, 도시 거주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강현수 2010: 21-40). 이러한 권리는 소유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다양한 권리들과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법적인 권리 보장 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관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성이 국가가 공인하는 특정한 권리와 법으로부터 배제된 영역이라고 볼 때, 비공식의 영역은 이러한 다양한 권리에 대한 주장과 실천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한 것이다. 아감벤은 예외상태가 규범이 효력을 갖지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법률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결의가 법률의 '힘'을 획득하는 하나의 '법률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극한적인 상황에서 '법률-의-힘'은 규정 불가능한 요소로서 부유하는 것으로, 국가 당국에 의해서도 혁명 조직에 의해서도 요구될 수 있다(Agamben 2009: 79). 아감벤의 예외상태는 국가의 규제가 힘을 발휘하지 않는 아노미의 상태에서 국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법률없는 법률-의-힘'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법률없는 법률-의-힘'은 혁명과 같이 기존의 권력 구도를 전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적 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공식성을 본질적인 범주로 정의하지 않고, 이것이 전지구적인 경제, 정치 구조와 연동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의도적 개입과 무개입이 작동하는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비공식성이 갖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논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식성과 상호작용하며 도시 공간을 생산해 내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12,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장호준, 2011, "중국의 비공식경제론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 『국제 지역연구』 20(3): 111-149.
-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또 하나의 문화.
- Agamben Giorgio, 2003, *Der Ausnahmezustand*, European Graduate School. (김항 옮김, 2009, 『예외상태』, 새물결.)
- Alsayyad N., 2004, "Urban informality as a "new" way of life," in Roy, Ananya and Nezar Alsayyad (eds.),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Lexington Books, pp.7-30.
- Brillembourg A. and Klumpner H., 2010, "Rules of engagement: Caracas and the informal city," Hernandez F. et al. (eds.), *Rethinking the informal city: critical perspectives from Latin America*, Berghahn Books, pp. 119-136.
- Bromley, Rosemary, 1978, "Introduction-The urban informal sector: why is it worth discussing?," *World development* 6(9): 1033-1039
- _____, 2004, "Power, Property, and poverty: why De Soto's "Mystery of capital" cannot be

- solver," in Roy, Ananya and Nezar Alsayyad (eds.),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Lexington Books.
- Bromley, Rosemary and Peter Mackie, 2009, "Displacement and the new spaces for informal trade in the Latin American city centre," *Urban Studies* 46(7): 1485–1506.
- Bunnell, Tim and Alice M. Nah, 2004, "Counter-global cases for place: contesting displacement in globalising Kuala Lumpur metropolitan are," *Urban studies* 41(12): 2447–2467.
- Castells Manuel and Portes Alejandro, 1989, "World underneath: the origins, dynamics, and effects of the informal economy," in Portes Alejandro, Manuel Castells, and Lauren A. Benton (eds.), *The informal economy: studies in advanc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pp. 11–37.
- Davis, Mike, 2006, *Planet of slums*, Verso: London. (김정아 옮김, 2013, 『슬럼, 지구를 뒤덮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돌베개.)
- De Certeau, Michel,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 Steven Rendal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De Soto, Hernando, 2000,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 Basic books. (윤영호 옮김, 2003, 『자본의 미스테리: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는가』, 세종서적.)
- Guha-Khasnabis B., Kanbur R. and Ostrom E., 2007, "Beyond formality and informality," in Guha-Khasnabis, B., et al., *Linking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0.
- Hart, Keith, 1973,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11(01): 61–89.
- Hernandez, Felipe and Peter Kellett, 2010, "Introduction: reimagining the informal in Latin America," in Hernandez, Felipe, Peter Kellett and Lea K. Allen (eds.), *Rethinking the informal city: critical perspectives from Latin America*, Berghahn Books, pp. 1–19.
- Hernandez, Felipe et al., 2010, *Rethinking the informal city: critical perspectives from Latin America*, Berghahn Books.
- Hsu, Ching Wen, 2010, "“Making Streets”: Planned Space and Unplanned Business in New Kujiang, Taiwan," *City & Society* 22(2): 286–308.
- Lima Zeuler R. and Pallamin Vera M., 2010, "Informal practices in the formal city: housing, disagreement and recognition in downtown Sao Paulo," in Hernandez F. et al. (eds.), *Rethinking the informal city: critical perspectives from Latin America*, Berghahn Books, pp. 39–51.
- Low, S. and N. Smith, 2006, "Introduction: the imperative of public space," in Low S. and N. Smith (eds.),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Routledge, pp. 1–16.

- Roy, Ananya, 2004, "Transnational tresspassings: the geopolitics of urban informality," in Roy, Ananya and Nezar Alsayyad (eds.),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Lexington Books.
- _____, 2007, "Urban informality: toward an epistemology of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1(2): 147-158.
- _____, 2009, "The 21st-century metropolis: new geographies of theory," *Regional Studies* 43(6): 819-830.
- Roy Ananya and AlSayyad, Nezar, 2004,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Lexington Books.
- Scott, James, 199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 Seligmann, Linda. J., 1989, "To be in between: The Cholas as market wome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1(4): 694-721.
- Sindzingre A., 2007, "The relevance of the concepts of formality and informality: a theoretical appraisal," in Guha-Khasnobis, B., et al., *Linking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Oxford University Press, pp. 58-74.
- Soliman, Ahmed M., 2004, "Tilting at Shpinxes: locating urban informality in Ehyptian cities," in Roy, Ananya and Nezar Alsayyad (eds.),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Lexington Books, pp.171-208.
- Spencer, Annalisa, 2010, "The informal architecture of Brasilia: an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urban role of its satellite settlements," in Hernandez F. et al. (eds.), *Rethinking the informal city: critical perspectives from Latin America*, Berghahn Books, pp. 53-69.
- Stoller, Paul, 1996, "Spaces, places, and fields: the politics of West African trading in New York City's informal economy," *American Anthropologist* 98(4): 776-788.
- Tripp, Aili Mari, 1986, "The Informal Economy and the state in Tanzania," in Smith M. Estelle (eds.), *Perspectives on the Informal Economy :monographs in Economic Anthropology No. 8*, pp. 49-71.
- Venkatesh S., 2013, *Floating City*,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수디르 벤카테시, 문희경 옮김, 2014 『플로팅 시티: 괴짜 사회학자, 뉴욕 지하경제를 탐사하다』, 어크로스.)

■ 논평 I

강재성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인류학과 박사과정 논문자격시험”의 답안지라는 글의 무시무시한 출신성분(?)도 그렇고, 스캇이나 아감벤과 같이 그 위명(威名)‘만’을 알고 있는 학자의 논의들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인용되어 있는 이 글을 읽고, 또 논평까지 하는 것은 분명 간덩이가 부은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한다. 하지만 부은 내 간덩이를 짐짓 못 본 척하며 이 글을 이해한대로나마 힘껏 질문거리를 던지면서 뭔가 내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사실 이 글을 정말 생각 밖에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재미의 8할은 아마도 신기함에서 온 것 같다.

사실 이 글에서 공식-비공식 영역의 구분이 도마에 올랐을 때, 두 영역의 구분이 애매하며 상호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다거나, 비공식성이 “반쯤은 공식적인 것(semi-formal)”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이런 불손무쌍한 표현을 용서해주신다면) 인류학과에서 3학기 째 몸담고 있는 대학원생의 어쭙잖은 ‘감’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식-비공식의 구분을 시종 정부의 통치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새롭게 느껴지는 신기한 이야기였다.

채현정의 글은 경제활동에서 공식-비공식 영역을 이분화 하는 이중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경제활동에서 이중주의 입장에서 공식-비공식 영역을 가늠하는 기준은 국가에 달려 있다. 전자는 국가의 통제 범위에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국가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으며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채현정은 이중주의 입장과 같이 공식-비공식 영역을 단순히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주로 제3세계의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은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주의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이 글에서는 시종 국가에 의한 비공식 영역의 생성을 다루고 있다. 공식-비공식 영역 사이의 분리는 애매하거나 존재하지 않을지언정, 비공식성은 “국가의 규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의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여된다. 이러한 전략은 비공식성이 “국가에 의해 생산되는 국가 내부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도시 공간의 비공식성은 국가의 통치 수단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도시 공간의 비공식성에는 일견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 공간의 비공식성은 국가의 통치 전략의 일환이다. 아감벤에 의하면 비공식성은 국가로부터 배제된 예외적 상태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가는 예외적인 상태에 놓인 영역에 대하여 ‘무허가정착지’와 같은 부정적이고 범죄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통치를 수행한다. 한편 도시 공간의 비공식성에는 “공식적 규범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근대 도시로 설계된 브라질리아에서 비공식적 영역들이 생성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국가가 부여한 공식-비공

식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채현정의 글에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도시권(도시 거주자의 권리)으로 수렴된다. 도시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규정되면서 배제된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비공식성은 단지 공식적 질서에 대한 저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권리에 대한 주장과 실천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채현정은 도시권 연구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비공식성을 통해 “국가의 의도적 개입과 무개입이 작동하는 정치적 과정”임과 동시에 “도시 공간을 재생산해 내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어쩌면 이 글에서는 도시 공간에서 비공식성의 두 가지 측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으며, 나는 매우 적절한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례로 ‘도시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양면을 하고 있는 도시 공간의 비공식성이라는 동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쉽사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2009년 용산참사⁴⁾를 생각해 보면, 채현정의 날카로운 통찰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용산참사에서 세입자들은 분명히 국가를 비롯한 공식적인 질서에 의해 배제된 비공식의 영역에 있었다. 이들은 주요 일간지들에 의해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세입자들에게 아감벤이 말한 바, “법률없는 법률-의-힘”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한 가능성을 살피는 것에 앞서서 세입자들이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매도됨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던 이유를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감벤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비공식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작동이 소략한 느낌이어서 아쉬웠다.

■ 논평 II

정 현 목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로)

도시에서 관찰되는 ‘비공식적’ 활동에 관한 연구는 도시인류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채현정의 이 글은 기존 논의들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제안한다. 저자의 핵심 논지는 ‘공식성’과 ‘비공식성’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시의 비공식성을 국가 권력과의 밀접한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비공식 영역은 공식 영역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 공식 영역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보완적 영역 역시 아니다. 공식과 비공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에서는 비공식성을 고립된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비공식성과 공식성 간의 연속적인 관계를 포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채현정

4) 2009년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세입자들과 경찰이 남일당 건물에서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 세입자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참사를 말한다.

은 관련 논의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 도시의 공식성과 비공식성 사이의 명시적인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그뿐 아니라 비공식성을 비공식으로 명명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면서, 더 나아가 비공식 영역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도시의 통제 형태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특히 채현정의 논의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비공식성의 정치적 동원’을 다룬 절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저자는 메트로폴리스와 도시화에 관한 로이(Roy)의 논의를 빌려 비공식성의 출현을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제한된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적 공모”로 명명하고, 비공식성이 국가의 범주 바깥이 아니라 국가의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회의 주류적 시각에 의해 옳은 것으로, 마땅히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공식성의 반대항인 비공식성—이 역시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이분법적 접근에 기인한 것이다—은 불법적인 동시에 위험과 실패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처럼 비공식성에 부여되는 부정적 함의는 비공식성 자체를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비공식성은 공식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것으로 규정되지만, 이때 공식성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바로 국가 권력이다. 국가는 동일한 상업공간이나 주거공간을 상황에 따라 공식성의 공간에서 비공식성의 공간으로 바꾸어 규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본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다. 세계 각지의 도심에서 벌어져 온,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양상들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비공식성을 아감벤이 논한 바 있는 ‘예외상태’에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권과 관련하여 비공식성을 도시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다. 특히 도시권과 관한 문제에서 비공식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적 실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환가치와 소유권에 기반을 둔 지배 담론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도시 거주자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에 있어 비공식성의 존재는 저자의 주장대로 도시를 다양한 공간적 실천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 도시라는 혼종적 공간의 형성에 있어 비공식성은 거기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배제된 도시민들을 위한 도시권의 확보를 위한 물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현정의 글은 비공식성의 특징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양상들, 국가 권력과의 연관성과 도시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같은 도시 연구자의 입장에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그 동안 비공식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논의의 전개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역시 적절한 방식으로 타개해 나갔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 글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던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이분법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글의 후반에 이르러서는 다시 논의의 기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특히 글의 후반부, 도시권의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비공식성이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면서 저자가 앞에서 비판했던 비공식성의 본질적 성격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글의 앞에서 비판했던 내용들이 뒤에 와서는 저자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배경 요인으로 다시 돌아와 작용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은 예외상태와 관련한 아감벤의 논의와 접합되면서 상당부분 차단되며, 이는 좋은 서술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저자 역시 지적했듯이, 도시의 비공식성은 예외상태와 유사한 논리를 지닌 포합적 배제를 통해 권력의 통치술로 작용한다. 아감벤이 주목한 새로운, 도래하는 정치의 가능성은 이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즉, 도시권은 비공식성 자체가 지닌 어떤 본질적 성격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성이 생겨나는 정치적 과정과 그를 통해 태동한 다른 형태의 실천들에 의해 확보된다는 것이다.

다만 비공식성을 예외상태로 보겠다는 언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의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채현정이 논한 비공식성과 아감벤의 예외상태는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배제를 통한 포합’이라는 점에서 논리적 유사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생명정치(biopolitics)의 측면에서 예외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상이 다양한 형태의 수용소들이며 수용소의 모델이 형태를 바꾸어가며 사회 전반에 상례화-동시에 또 다른 정치의 잠재성도 함께 생성-된다는 것이 아감벤의 주요 논지이다. 이처럼 상당히 ‘센’ 논의가 배경에 깔려 있음을 감안할 때, 비공식성을 예외상태로 파악하여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저자의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를테면 저자의 논의에서 비공식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국가 권력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공식성을 예외상태에 바탕을 둔 통치술로 보는 주장은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를 통해 저자가 전개한 논의의 열린 가능성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답변

채 현 정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로)

앤스로피아 창간에 애쓰는 선후배들의 노고를 타지에서 공지메일로나마 접하면서 저널 창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느끼던 차에, 저널에 논문자격시험 답안을 게재하는 부분이 있으니 답안지 하나를 꺼내 보여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논문자격시험 답안을 게재하는 것은 ‘시험 답안지를 공개한다는’ 약간의 수치심만 감수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선뜻 투고에 응하게 되었다. 부족한 이 글에 대해 조금 변명을 하려면, 박사과정 논문자격시험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박사과정 논문자격시험은 학칙에 따라 현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치러야 하며, 인류학의 세부 분야 중 세 분야를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받아 각각 일주일 간 작성하는 방식이다. 매 주 10페이지 이상의 글을 작성해야 하며, 시험 답안이라는 글의 형식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답안’의 ‘정답’을 알지 못 하는, 즉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답안의 형태를 띠어서는 안 되는(이것은 문

제 별, 해당 커미티 별, 수험생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애매한 성격을 띤다. 따라서 필자의 글은 인류학 하위 분야의 리뷰도 아니고, 연구 자료에 기반한 논문도 아니며, 필자의 박사 논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하기에 부적절한 내용과 구성을 가진 글이다.

도시 인류학의 분야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이 도시 공간의 형성과 연관되는 양상에 관하여 논하라'는 문제를 받고, 필자는 비공식 경제활동, 혹은 비공식성이 도시를 구성해 나가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현상들을 논의하고 싶었다. 비공식성을 공식과 대비되는 수동적이고 고립된 영역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는 답을 제안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제 인류학 분야에서 공식과 비공식성 영역의 중첩성을 설명하는 논의들이 많았고, 이러한 개념적 논쟁이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비공식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도시를 주제로 비공식성의 개념을 주목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비공식성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회적 정치적 구성이고 그 주요한 주체로는 국가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시험 답안의 특성 상 선행 연구들에 기대어 비공식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전개하는 방식이 되었고, 두 분의 지적처럼 필자의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지 못 하는 글이 되었다. 정현목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글의 후반부에 도시권의 개념 하에서 비공식성의 가능성을 논하는 부분은 국가로 대변되는 공식의 영역과 비공식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논의로 환원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공식성을 예외 상태로 보고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점에서 공식과 비공식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국가 권력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필자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며, 비공식성의 개념을 활용할 때 가능할 다양한 논의들을 국가 권력의 문제로만 단순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국가의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소위 공식과 비공식이라고 규정된 영역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활동에서도 유동성과 역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비공식의 영역에서는 더 다양한 활동과 실천이 일어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계를 부여하거나 거둬들이는 국가와 사람들(의 활동)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고 생각했다. 비공식성은 국가가 비공식이라고 규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규정이나 무관심, 사람들의 창의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식성을 둘러싼 국가와 행위자들의 공모나 비공식성이 새로운 규범이나 규율, 혹은 국가의 법과 합리성에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필자가 굳이 도시권의 범주에 비공식성을 넣어보고 싶었던 것도 '또 다른 정치의 잠재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공식적 영역 속에서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이나 정치,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희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용산참사를 예로 들며 지적한 것처럼 비공식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운 권력의 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필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필자가 피력하고 싶었던 비공식의 영역에서 희망적인 결과들이 출현하는 아름다운 사례들을 발견하는 일이 가능할 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비공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좀 더 열린 실천과 행위들이 갖는 가능성에 힘을 부여하고

싶고, 국가 역시도 비공식의 힘을 빌거나 공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비공식 영역의 가능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의하는 것부터가 매우 복잡한 논의이지만, 국가 역시도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역시도 비공식의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분의 지적처럼 국가의 통치술과 비공식의 잠재성이 공존하고 상호보완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비공식성이 도시 공간에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정치적 힘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족한 글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고 적절하게 논평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두 분의 논평을 통해서 필자도 다시 한번 논의를 되새겨 보고 발전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